

통증클리닉 내원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관한 분석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통증클리닉, *마취통증의학교실

조 대 현 · 홍 지 희 · 김 명 희*

= Abstract =

A Survey on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Visiting Pain Clinics

Dae Hyun Jo, M.D., Ji Hee Hong, M.D., and Myoung Hee Kim, M.D.*

Pain Clinic an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HA General Hospital, Seongnam, Korea

Background: Recently, the number of patients visiting pain clinics has been increasing with the augmented concerns of those patients about the management of their pain. We conducted this study in order to elucidate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visiting pain clinics and to determine a method to further raise their awareness about pain treatment.

Methods: We reviewed 1,424 new patients who visited our pain clinic from March 2003 to December 2004. We analyzed these patients according to their age and sex, treatment method before visiting the pain clinic, coexisting disease, chief complaint and pain location, resident district, route of visiting pain clinic, and degree of impairment due to pain by use of questionnaire.

Results: In age distribution, the largest proportion (23.5%) was in their 50's. Most patients (64.0%) had received treatment in an oriental medicine clinic before visiting the pain clinic. The most common coexisting disease was hypertension (20.3%) and low back pain was the most common chief complaint (68.3%). Most of the patients lived in Gyeonggido (87%) and most visited our pain clinic on the recommendation of other patients who had visited our pain clinic before.

Conclusions: We need to guide pain patients to undergo proper treatment much earlier using patient education or a referral system. Moreover, we should be more careful in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and should have greater concern in the treatment of low back pain. (Korean J Pain 2005; 18: 146-150)

Key Words: pain clinic, questionnaire, referral.

서 론

근래에는 생활 수준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사회적 고령화로 통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증으로부터의 해방과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러나 만성 통증환자들은 질병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어느 한 곳에서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됨에 따라 이차적인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¹⁾ 통증클리닉을 처음 방문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이러한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특성에 관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만성 통증환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 및 배경에 관해 비교 분석하여 통증환자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의 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본원의 통증클리닉을 처음 방문한 환자들 중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1,4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Fig. 1). 환자가 외래를 방문할 당시 설문지를 통하여 성별, 연령, 주 증상, 방문 동기, 통증으로 인한 불편사항, 그동안 받았던 치료의 종류, 환자의 거주지, 평소 질병에 관해 조사하였다.

결 과

환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로는 1,424명 환자의 연령별 분포는 40-49세, 50-59세, 60-69세에서 각각 278명(19.5%), 336명(23.5%), 272명(19.1%)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하였다. 성

접수일 : 2005년 7월 20일, 승인일 : 2005년 10월 31일

책임저자 : 조대현, (463-7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1,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통증클리닉

Tel: 031-780-6124, Fax: 031-780-6123, E-mail: pandjo@mdhouse.com

Received July 20, 2005, Accepted October 31, 2005

Correspondence to: Dae Hyun Jo, Pain Clinic, CHA General Hospital, 351 Yatap-dong, Bundang-gu, Seongnam 463-712, Korea.

Tel: +82-31-780-6124, Fax: +82-31-780-6123, E-mail: pandjo@mdhouse.com

성명 : _____ 나이/성별 : _____

1. 저희 통증클리닉에 오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 주위 사람의 소개 2) 다른 과에서 소개 3) 인터넷을 통하여
 4) 텔레비전, 라디오 5) 우연히
 6) 기타 다른 동기로 오셨다면 적어주세요. ()

2. 현재 가장 불편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있는 대로 모두 표시하세요.
 1) 머리 2) 목 3) 등 4) 어깨 5) 팔, 손
 6) 허리 7) 엉덩이 8) 대퇴부 9) 종아리 10) 발목, 발
 11) 기타 특별한 부위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

3. 어느 때 가장 아프십니까? 있는 대로 모두 표시하세요.
 1) 서 있을 때 2) 앉아 있을 때 3) 누워 있을 때 4) 걸을 때
 5) 일어서려 할 때 6) 앉으려 할 때
 7) 기타 다른 자세나 운동 등도 적어주세요.

4. 현재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다음 중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있는 대로 모두 표시하세요.
 1) 간혹 신경이 쓰인다. 2) 직장생활에 불편하다.
 3)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못한다. 4) 큰 병이 아닐까 신경쓰인다.
 5)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다. 6) 죽을 것만 같다.

5. 그동안 어떤 치료를 받았습니까? 있는 대로 모두 표시하세요.
 1) 약국에서 조제약 2) 물리치료 3) 한방병원 4) 침
 5) 한약 6) 통증클리닉 7) 정형외과 8) 신경외과
 9) 재활의학과 10) 집에서 민간요법
 11) 기타 다른 치료를 받은 것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6. 평소 가지고 있는 질병을 표시하여 주세요.
 1) 당뇨 2) 고혈압 3) 심장병 4) 천식 5) 기타 호흡계질환
 6)감상선질환 7) 심장병 8) 간염 9) 비뇨기계질환 10) 류마티스병

Fig. 1. Contents of questionnaire.

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Age (yr)	Male	Female	%
0-9	3	0	0.2
10-19	10	8	1.3
20-29	38	54	6.5
30-39	103	126	16.1
40-49	112	166	19.5
50-59	128	208	23.5
60-69	86	186	19.1
70-79	49	107	11
80-89	12	22	2.4
90-99	1	5	0.4
Subtotal	542	882	100.0
Total	1,424		

별로는 남자가 542명(38%), 여자가 882명(62%)이었다(Table 1).
 통증클리닉 방문하기 전 받았던 치료의 종류로는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가 912명(64.0%)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

Table 2. Methods of Treatment before Visiting Pain Clinic

	No. of patients	%
Oriental medicine	912	64.0
Local pain clinic	214	15.0
Orthopaedics	426	29.9
Neurosurgery	181	12.7
Rehabilitation medicine	119	8.4
Total	1,852	130

Table 3. Classification of Coexisting Diseases

	No. of patients	%
Diabetes mellitus	137	9.6
Hypertension	289	20.3
Cardiac disease	73	5.1
Pulmonary disease	104	7.2
Thyroid disease	42	2.9
Liver disease	44	3.1
Rheumatic disease	65	4.6
Osteoporosis	5	0.1
Gastrointestinal disease	36	2.5
Others*	115	7.3
Total	910	62.7

*: atherosclerotic obliterans, cancer, Behcet disease, varicose vein.

Table 4. Classification according to Pain Location and Chief Complaints

	No. of patients	%
Head	187	13.1
Neck	310	21.8
Shoulder	491	34.5
Arm, hand	370	26.0
Lower back	972	68.3
Leg, foot	431	30.2
Knee	72	5.0
Others*	342	24.0
Total	3175	222.9

*: Bell's palsy, facial spasm, cancer pain, Ramsay hunt syndrome, multiple contusion.

외과 426명(29.9%), 개인 통증클리닉 214명(15%) 순이었다(Table 2).

평소에 앓았던 질병의 종류로는 고혈압을 가진 경우가 289명(20.3%)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 137명(9.6%), 호흡기 질환 104명(7.2%) 순이었다(Table 3).

주증상별 분포로서 허리가 아픈 환자가 972명(68.3%)으로 가장 많았고, 어깨가 아픈 환자가 491명(34.5%), 다리, 발이

Table 5. Distribution according to Patient Resident Districts

	No. of patients	%
Ganwondo	13	9.1
Gyeonggido	1,307	87.0
Gyeongsangdo	32	2.0
Jeollado	26	1.6
Jeju	6	0.1
Chungcheongdo	40	0.3
Total	1,424	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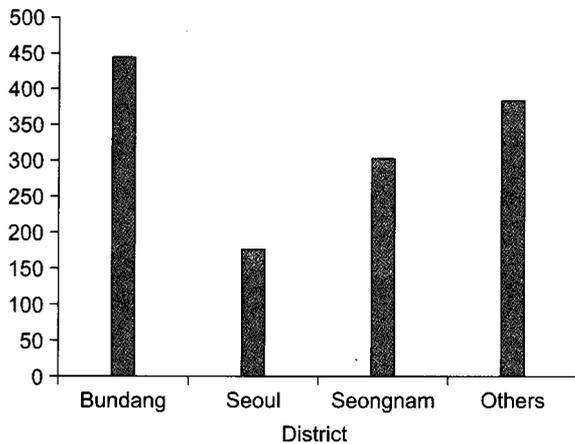


Fig. 2. Distribution of patients in Gyeonggido.

아픈 환자 431명(30.2%)순이었다(Table 4).

방문환자의 거주지별 분포는 경기도가 1,307명(87%)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에서 분당이 444명으로 가장 많았다(Table 5, Fig. 2).

통증클리닉의 방문 경로로는 본원 통증클리닉에서 치료 받았던 환자의 소개로 내원한 사람이 719명(50.5%)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통증클리닉으로 의뢰된 환자가 410명(28.8%)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인터넷을 통한 경우가 108명(7.6%)이며, 텔레비전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132명(9.2%), 본원 다과에서 진원된 경우가 46명(3.2%), 강의 등을 통한 경우가 9명(0.6%)이었다(Table 6).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침해의 정도로는 일상생활 하기가 힘들다가 650명(45.6%)으로 가장 많았고, 큰 병이 아닐지 걱정스럽다가 250명(17.5%), 간혹 통증이 있다가 154명(10.8%) 순이었다(Table 7).

고 찰

근래에는 나아진 생활 환경으로 사회적인 고령화, 의료에 대한 요구의 증가에 힘입어 통증클리닉을 방문하는 환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통증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각

Table 6. The Route of Visiting Our Pain Clinics

	No. of patients	%
Other patient*	719	50.5
Local clinics	410	28.8
Internet	108	7.6
Television	132	9.2
Other department [†]	46	3.3
Lecture	9	0.6
Total	1,424	100.0

*: patient who previously visited our pain clinic, [†]: other departments in our hospital.

Table 7. Distribution according to Degree of Impairment of Daily Activities

	No. of patients	%
A	154	10.8
B	124	8.8
C	149	10.5
D	250	17.5
E	650	45.6
F	97	6.8
Total	1,424	100.0

A: intermittent pain, B: difficulty to work, C: impossible to enjoy their leisure, D: it might be a serious disease; E: difficulty for daily life; F: continuous pain.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한 환자들을 정리 분석하여 보다 우수한 진료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통증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들 중 50-59세의 연령이 전체의 23.5%로서 가장 많았다. 고령층이 많다는 것은 곧 동반된 질환의 위험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 조사한 동반된 평소의 질병을 살펴보면 고혈압이 2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당뇨병으로서 9.6%를 차지하였다. 통증클리닉에서는 치료를 위해 약물 처방 외에도 다양한 시술들을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시술을 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다. Lee 등은²⁾ 평소 고혈압이 있었던 심한 요하지통을 가진 환자에서 요부 추간관절 차단과 요부 일회 경막외강차단을 시행한 1일과 3일 후에 뇌졸중이 발생하였으며 신경근 치료 등의 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치료의 전에는 진통제와 진정제 등을 전투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혈압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6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확장기 혈압이 90 mmHg 이하라도 수축기 혈압이 160 mmHg 이상인 경우에는 고혈압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³⁾ Kim 등은⁴⁾ 1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왔던 환자에게 발생한 대상포진의 통증 조절을 위해 경막외 카테터를 거치한

후 경막의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했으며 특히 당뇨병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시술하기 전 광범위 항생제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했다. Ladhani 등에⁵⁾ 따르면 당뇨병은 경막의 농양의 가장 중요한 단일 위험 인자로서 대략 15%에서 당뇨병이 있었던 환자이고, 이외에 감염(44%), 척추의 외상(10%), 정맥으로의 약물 투여(9%) 등이 위험 인자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Philips 등에⁶⁾ 따르면 당뇨병 외에 말기 신부전, 암, 스테로이드 투여, 대상포진, 류마티스 관절염이 위험인자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통증클리닉에서 시행하는 시술들은 침습적인 수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치료자 모두가 시술 후에 자연적으로 또는 시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식과 설명이 부족한 형편이다. 고령 환자들은 이미 고혈압, 당뇨병 또는 심장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증 치료 전 자세한 문진과 이학적 검사를 철저히 하고 여러 가지 시술 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 요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통증클리닉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방문 동기는 주위 사람의 소개가 44.2%로 가장 많았고 같은 병원내 타과에서 소개받은 경우는 3.2%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서창민 등은⁷⁾ 환자들의 통증클리닉의 방문 경로 중에서 과거에 치료받았던 환자의 소개로 내원한 사람이 32.0%로 가장 많았고 같은 병원의 타과에서 의뢰된 경우가 29%로서 그 다음이라고 하였다. Davies 등의⁸⁾ 연구에 의하면 통증클리닉 환자의 44%가 타과 의사에 의해 의뢰되어 오는 경우였다고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같은 병원의 타과에서 의뢰된 경우가 전체의 3.3%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환자 의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환자의 만족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환자의뢰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는 통증클리닉에 대한 타과 의사의 지식이나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원활한 협진진료를 위한 임상과간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통증클리닉의 홍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주기적인 집담회를 열어 적극적인 협진진료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환자수의 증가는 물론이고 일반 대중 및 환자들의 통증클리닉에 대한 홍보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통증환자들의 지역적 분포는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 분당이 2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성남, 서울,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 등에도 골고루 분포되었다.

Seo 등은⁷⁾ 방문환자의 거주지별 분포에서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 대구시가 67.6%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가 29.6%, 대구, 경북을 제외한 지역은 2.8%라고 하였으며 통증클리닉의 이용이 거리에 제한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전국적인 분포를 보였는데 이것은 환자들이 병의 치료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을 선호

하는 특성과 만성 통증 환자들은 단기간에 쉽게 좋아지지 않는 특성때문에 전국 규모의 병원을 찾아다닌다고 볼 수 있다.

환자들의 주된 증상 및 가장 흔히 통증을 호소하는 곳은 요통(68.3%)이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깨(34.5%), 다리, 발(30.2%)의 순이었다. 요통이 가장 많은 것은 여러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보고되고 있으며^{7,9,10)} Oh에 의하면¹¹⁾ 대학병원의 통증 치료실의 경우 암성 통증 환자가 24%로 가장 많고 개인 통증 치료실의 경우 요통 환자가 36%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Jang 등은¹²⁾ 암성 통증환자가 전체의 43.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위암이 26.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했다.

환자들이 외래를 방문하기 전 받았던 치료의 종류는 한 방 치료가 전체의 49.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물리치료 44.5%, 개인 정형외과에서의 치료 29.9% 순이었다. 한 방 치료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침술과 부가적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물리치료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의 통증클리닉에서는 신경 차단술이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행해져온 치료법의 일환이었으나 이 외에도 인대 증식 요법, 근육내 자극술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정형외과에서 치료 받은 경우가 세 번째로 많았는데 이것은 환자들의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통증환자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통증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서 55%의 환자들이 일상 생활 자체가 힘들다고 하였고 이것으로 보아 환자들은 일상 생활의 심한 장애가 생긴 후에야 대부분 병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병이 그러하듯 통증도 발생 당시 조기에 치료를 해주어야 만성화를 막을 수 있으므로 통증의 조기치료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Gagliese와 Melzack은¹³⁾ 대다수의 노인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 할 정도의 통증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 원인은 노인의 통증을 적절히 평가할 만한 수단의 부족과 약제에 대한 감수성이 일반인들과는 다르다는 점, 통증이 노화에 따르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잘못된 신념 때문에 조기의 통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못할 수가 있다고 했다.

국내 인구는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사회 전반적으로 의료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통증 환자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다. 통증클리닉을 방문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노인 환자들의 통증에 대한 생리적, 정서적 반응과 진단 및 치료의 특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통증 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특히 타과로부터의 의뢰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함이 병원과 환자 모두를 볼 때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만성적인 통증 환자들이 보다 많이, 좀 더 조기에 통증클리닉을 방문하여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참 고 문 헌

1. Jacobson L, Mariano AJ: General considerations of chronic pain. In: Bonica's management of pain. 3rd ed. Edited by Loeser J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Publishers. 2001, pp 241-54.
 2. Lee HK, Kim SM, Han KR, Lee JM, Ko SS, Kim C: Stroke after procedure of lumbar facet joint block and lumbar epidural block. Korean J Pain 1997; 10: 131-3.
 3. Mann SJ: Systolic hypertension in the elderly. Pathophysiology and management. Arch Int Med 1992; 152: 1977-84.
 4. Kim DH, Kim DC, Lee JB, Han YJ, Choe H: Epidural abscess after epidural block for pain management. Korean J Pain 2003; 16: 286-90.
 5. Ladhani S, Philips SD, Allgrove J: Low back pain at presentation in a newly diagnosed diabetic. Arch Dis Child 2002; 87: 543-4.
 6. Philips JM, Stedeford JC, Hartsilver E, Roberts C: Epidural abscess complicating insertion of epidural catheters. Br J Anaesth 2002; 89: 922-4.
 7. Seo CM, Mun CW, Baek WI, Hong JG: A survey of patients visiting pain clinic. Korean J Pain 2003; 13: 224-31.
 8. Davies HTO, Crombie IK, Macrae WA, Rogers KM: Pain clinic patients in northern Britain. The Pain Clinic 1992; 5: 129-35.
 9. Lee YJ, Lee SG, Kim JI, Ban JS, Min BW: 10 years survey of pain clinic. Korean J Pain 1994; 7: 283-7.
 10. Shin SH, Chung YP, Lim JJ, Yoon KB, Kim C: A clinical survey of patients of neuro-pain clinic. Korean J pain 1994; 7: 84-7.
 11. Oh HK: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pain clinics in Korea. Korean J Pain 1992; 5: 171-6.
 12. Jang YH, Lee JK, Cheun JK, Chung JK: A clinical survey of patients of pain clinic. Korean J Pain 1995; 8: 103-9.
 13. Gagliese L, Melzack R: Chronic pain in elderly people. Pain 1997; 70: 3-14.
-